

## 바라는 게 뭐냐?

### 요한복음 1장 35-42절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아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려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계속해서 4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보다 요한복음에서는 훨씬 의미와 비중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세례요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지난주의 말씀의 마지막 절 28절을 보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29절에서도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님과 만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문역시 35절에 ‘**이튿날**’에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도 43절의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나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구조를 본다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과 빛으로 존재하셨던 분임을 증거하고,

그 분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 하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 하는 자였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

제자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여 친구들을 데려와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세례요한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 주 말씀의 주제는 그가 단지 ‘소리’로서의 사명, 즉 ‘메시아를 전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일어난 일은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명으로 알고 전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었던 일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해보지만 자신도 보지 못했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로 세례를 주며 기다렸던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신의 확신했던 일에 ‘확증’이 더해지니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요즘 일상화 된 일 중에 하나가 호위 ‘셀럽’들을 만나면 너도나도 사진을 찍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까요?

누군가 새로 출시될 자동차를 세일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스마트 폰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노는 앞에서 그 제품이 출시되는 순간입니다.

감추어졌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사람들의 탄성이 들립니다. ‘역시!’ 자신이 그렇게 좋다고 외쳤던 물건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는 순간도 감격적일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 삶을 다해 증거 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를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확증과 흥분 가운데서 이어지고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 중에 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서운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기꺼이 그렇게 되어

야 할 일임을 알기에 기꺼이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요한이 순교를 다하게 될 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죠.

## 본질적 신앙의 점검

오늘 말씀은 이런 감격적인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점검 포인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사님이 잘하는 설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 분의 손가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모이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처음 모였던 목적을 잊어 버렸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지난 주 말씀을 통해 당시 유대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고 열광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요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을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핵심그룹을 이루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5-36절,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메시지가 신선하고 충격적이어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분이 내가 말하던 그 분,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저에게 제일 흥미로운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37절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이런 행동을 보고 있는 세례요한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섭섭함’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섭섭함’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인이고 사명자로 알았던 사람들이 무언가 ‘섭섭함’으로 사명자의 자리를 이탈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를 가장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싶고 존경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스스로 타락하는 모습들 말이죠. 특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추구하던 돈과 여자 명예의 문제들로 무너져 내리고 사명도 신앙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목회자는 은퇴의 자리에서 그가 살았던 삶이 진실했는지 드러납니다.

평신도들 역시 그들이 평생을 사역하고 헌신했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그 순간에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드러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의 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도에 장로가 됐느냐에 따라, 14장, 16장, 19장 이런 식이죠.

그런데 어떤 기수의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기수 장로들은 여러 사람이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역을 놓고 나이가 들어 장로 휴게실에 앉아서 후배장로들을 질책하거나 잔소리 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만이 우리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 말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잘 할 때는,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들의 격려도 받습니다.

이 때는 정말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의 보람도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주연이었던 우리가 조연 혹은 엑스트라, 아니면 무대 뒤로 퇴장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세례요한에게는 이 시기가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명이 일찍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벅찬 순간일까요? 그런데

그의 사명도 끝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분명히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간 것은 동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요한에게는 아주 섭섭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들은 배운 대로, 보는 대로 바로 실천한 사람들이죠.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결단한 마음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肯 시게마츠의 [예수를 입는 시간] p. 46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랫동안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고백록에서 그가 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구애를 느꼈지만 결국 거부했다. 하나님께 삶을 바치면 세상적인 쾌락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세상적인 쾌락에 빌목이 잡혀 그분께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아직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를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다만 지금은 말고요”라고 기도했다. . . .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와 섹스를 즐기며 살고 싶었다. 유명해지겠다는 야망으로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의 갈망은 한 정원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완전히 바뀌는 동시에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채워졌다. 그는 독신을 결심했지만 외롭기는커녕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 깊은 민족을 찾았다. 또한 명예욕을 버리고 나자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요한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온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38-39절 말씀.

38. 예수께서 돌아가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암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암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NIV 성경에 보면 "What do you want?" 라고 되어 있구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What are you af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켄 시게마츠의 [예수를 입는 시간]에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이민 간 가정의 전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에서 미국에 이민 간 가정의 전형적인 성취 욕구는 켄 시게마츠의 가정에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스하키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아들 시게마츠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 과목 A를 받으면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당시 전 과목 D학점을 받고 있었던 아들은 결국 전 과목 A를 받고 아이스하키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키를 시작하면서 성적은 다시 전 과목 D로 내려갑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학업과 점수에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어머니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성적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녀들 역시 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켄 시게마츠의 어머니는 명문대학이나 성적보다는 훨씬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말,

"명예나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육신적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순간 그 분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8절.

38. 예수께서 돌아가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랑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랑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더니, 이들이 엉뚱하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밥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밥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팬찮은 곳이면 따라가고, 환경이 나쁘면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약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고 있었는데도 따르던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새문안 교회의 원로목사님이 이수영 목사님은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께 나아오며 구하는 바에 대하여 드릴 말씀, 여쭐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것이니 두고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흔쾌히  
‘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복잡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39절,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려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 날 그들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 보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부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이 분명 세상적인 가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우도 굽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때보다 더 못한 환경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들의 삶을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삶이었습니다. 생소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사실은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40-43절 말씀.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데, 베드로를 제자 되게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함께 거하는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아주 다이내믹한 느낌을 받는 것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가슴 벅찬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 기꺼이 광야에서 살 수 있고, 결국은 집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때, 한국은 ‘우한폐렴’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공포에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신문에 700여명의 우한 교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격리시키는 장소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안으로 결정을 했다. 진천과 아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천안 사람들이 반대해 다른 곳으로 결정했더니, 그 곳 사람들은 트랙터와 농기구들로 길을 막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고 ‘표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화를 달래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오는 것을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하며 청주 공항으로 가라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손해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전반적은 이 세상의 정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내 자식과 형제가 타고 있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우리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

일까요?

‘랍비여 어디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우리도 갑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물과 발걸음이 있는 곳이면 기꺼이 우리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적어도 세상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13장 36-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마, 이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주님께 묻습니다.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디를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 길을 증거하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